

중소기업 AI 체질 개선 돕는다... '경북형 상생 모델' 가동

K-경북형 AI 동반성장 프로젝트 사업모델 발굴·공장 고도화 등 지원
앵커기업-협력 중기 격차해소 초점

경북도가 앵커기업의 우수물량과 중소기업의 AI 기술 도입을 연계하는 'K-경북형 AI 동반성장 주력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주 구미 세아메카닉스에서 행정·기술·금융 분야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모델 발굴부터 AI 도입, 공장 고도화까지 지원하는 통합 정책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경북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는 AI 전환과 해외 생산 확대,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급격한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에 도는 자동차 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AI 기반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철강, 반도체 등 10대 주력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앵커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자체적으로 AI 전환이 가능하지만, 2·3차 협력 중소기업은 투자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앵커기업 우수물량과 중소기업 AI 도입을 연계하고, 퍼지업 AI 공동연구개발과 품질관리, 자금 지원, 인력 양성, 마케팅까지 통합 지원하는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이 개별기업 중심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앵커기업이 협력사의 AI 도입을 견인하고 유관기관이 이를 뒷받침하는 상생 구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을 지원하고, 경북테크노파크와 로봇융합 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기술개발을 맡는다. 금융공대와 구미대, 경운대는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며, 경북경제진흥원과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은 판로와 현장 지원을 맡는다.

경북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을 투입해 제조업 AI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10대 주력산업별 앵커기업-

협력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와 로봇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100개를 성장형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해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공급한다.

사업은 기획, 협력, 전환, 도약, 확장 등 5단계 고도화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다. 단계별로 수요 분석과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표준화와 AI 도입, 공동연구개발과 사업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진행해 자립형 상생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소 협력업체는 단독으로 AI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북도가 앵커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자금·기술·인력·마케팅을 통합 지원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를 시작으로 철강과 반도체 등으로 확대해 AI 시대 동반성장 모델을 경북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무성영화 번사공연 10개군 확대

경남도가 문화 소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성영화 번사 공연을 도내 10개 군으로 넓힌다.

도는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의 하나로 20일 거창군 문화센터를 시작으로 5월까지 군 지역 전반에 번사 공연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사 공연은 소리 없는 무성영화에 번사가 직접 해설과 연기를 더하는 공연 형식이다. 지난해 함안군 시범 운영에서 호응을 얻은데 힘입어 올해 전면 확대에 나섰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목포시

'춤추는 바다분수' 내달 재개

목포시는 동절기 휴지기간 시설물 관리와 보강을 위해 중지했던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가 새롭게 단장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공연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2026년 첫 공연은 케데헌 OST와 악동뮤지션 히트곡, K-트롯 등 인기곡을 레이저와 분수음악 연출곡으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바다분수 공연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영화 속 다양한 컬러를 바다분수 노즐 조명과 레이저 색감에 녹여내어 생동감과 역동적인 모습을 더하고 악동뮤지션 등의 감미로운 음악으로 감성을 더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교육청

경북소년체전, 40개 종목 경쟁

경북교육청은 '2026년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도내 10개 시군,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선수 선발전을 겸해 열리며, 도내 22개 시군 초·중학생 선수 2459명이 참가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경기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육상·수영·축구·배구·탁구 등 주요 종목을 포함해 40여 개 종목에서 진행된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육상 경기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경산생활체육공원 시민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번 대회의 주요 관전 요소로 꼽힌다.

/경북=김준한 기자

경주시

시내버스 어린이·청소년 무료

오는 4월 1일부터 경주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전면 무료화된다.

경주시는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경주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별도의 전용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요금이 전액 지원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청송, 150억 들여 통합보건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건강관리 체계 고도화

청송군이 군민 체감형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군은 2026년 150억 원을 투입해 진료 기반을 강화하고 예방과 돌봄을 연계한 통합건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계획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건강관리 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진료 기능 강화와 예방 중심 정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지역 보건 의료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군은 공중보건조사 감소에 대응해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 집중한다. 전문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봉직의사 2명을 채용하고 보건진료소 기능강화사업을 통해 1차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진료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노후 보

건의료시설 개보수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체외충격과 치료기와 백신냉장고 등 의료장비를 확충해 진료 품질 향상도 추진한다.

2026년에는 의료를 넘어 돌봄과 재활까지 확대하는 신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재택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방문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취약지역 건강허브 조성사업을 통해 AI 기반 치매돌봄과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로봇재활운동실 운영과 방문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대여를 통해 장애인 기능 회복을 지원한다. 노인 방문 구강관리와 치매환자 실종예방 교육도 병행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청송(경북)=손기성 기자 gbnews8082@

포항시, 상수도 원격검침 AI 고도화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량 확인

포항시가 시민 편의 향상과 수도 행정 효율화를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AI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한 뒤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검침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사용량을 확인했지만, 원격검침 시스템은 디지털 계량기와 통신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앞서 시는 디지털 계량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별 사용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전체 계량기 6만 7000여 기 가운데 약 73%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 상태다. 2028년까지 전면 디지털화를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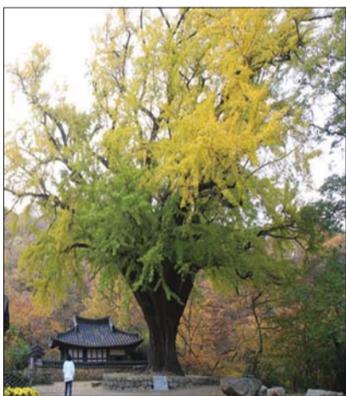
영주·경주 은행나무 문화자산 지정 추진

역사성·상징성 가진 산림 자원

경북도는 최근 관객 1300만 명을 돌파하며 주목받고 있는 영화 '왕과 나는 남자'와 연관된 역사 자원을 활용해 영주와 경주의 은행나무 2곳을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 대상은 단종과 금성대군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영주 내죽리 은행나무와 경주 왕신리 윤곡서원 은행나무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산림 자원이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제도로, 산림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 가운데 생태적·경관적·정서적 가



경주 왕신리 윤곡서원 은행나무 전경.

치가 높은 대상이 포함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울산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전략 모색

'화학의 날' 행사 개최

울산시가 지난 20일 울산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제20회 울산 화학의 날' 기념식을 열고, 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위한 기술 세미나를 병행 진행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 행사는 울산 화학산업의 발전을 돌아보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남교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산업통상부, 울산시의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울산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이 수

여됐다.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5명, 울산시장 표창 5명이다.

기념식에 이어 '석유화학산업 대전환 기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카이스트 최재식 교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혁신 방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라호원 본부장이 가스화 기반 자원순환 기술을 통한 탄소 중립 대응 전략을 각각 소개했다. 세종대학교 김용석 교수는 고부가 화학소재 개발 전략을 발표하며 석유화학산업의 미래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울산 화학의 날은 1968년 3월 22일 석유화학단지 기공을 기념해 지정됐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